

2021년 1월 19일 “성경의 큰 숲 보기(29) 요엘: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을 2:28-32)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걷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어떻게 창조의 회복을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주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 요엘서의 정황

요엘서는 저작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쓰일 때 정황은 앗수르와 바벨론 및 주변국가들의 위협을 받던 때였습니다. 이야기는 **1장**에서 자연재해로 시작합니다.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이 들이닥쳐서 당시 주 산업이었던 곡식과 과실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요즘 온 세상에 코로나 전염으로 산업, 교육, 문화 생활 영역에 피해를 입힌 것과 같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실제 사건을 이용하여 요엘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며 침범하고 약탈하는 주변 민족들을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로 봅니다. **2:20** ‘북쪽에서 온 메뚜기 떼들’은 앗수르, **3:4** – 두로, 시돈, 블레셋, **3:19** – 애굽(→ 바벨론), 에돔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2] 회개의 촉구와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회개를 촉구 받습니다.

예수님 때에 침례 요한도

마 3:2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 3:8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강력한 권면 또한 회개였습니다.

2:12 이하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합니다.

곡식, 포도주, 올리브, 풀이 무성하고, 들짐승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로 풍성해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 주시고, 땅에 곡식과 열매의 기름이 넘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황폐해진 그들 땅(2:3)이 회복될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27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의 진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3]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가능하게 하기 위한 큰 역사가 있습니다.

2:28 이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이것은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주님의 큰 역사입니다.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왜 회개한다는 조건을 채워야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선물 상자를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풀기만 하면 됩니다. 단, 그 선물을 푸는 방법은 주님과 맺은 인격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세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선물 포장

벗겨지고,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축복은 이미 내게 주어졌지만, 주님을 향한 회개 그 사랑의 선물의 포장을 풀 수 있는 것이며, 반면 회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포장이 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문자대로 예언, 꿈, 환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어른들, 젊은이들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이시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롭고 큰 일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새 일, 즉, 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고, 그것에 대해 예언(대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통해 본 현실을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4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고전 2:9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맺음>

요엘서와 선지서의 메시지는 이것에 정점을 찍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은 주님과 영과 함께 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생명의 힘을 얻는 약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새 일을 보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요엘서에서 메뚜기 떼들의 피해는 당시 사회/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2. 이스라엘의 축복은 단순히 농업 회복만이 아니라면, 회개라는 행동을 통해 어떤 더 큰 회복의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